

광주민주화운동 23주년 기념식 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오늘 광주민주화운동 23주년을 맞아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5·18 영령들 앞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면서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그날의 아픈 상처로 지금까지도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시는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큰 아픔을 딛고 일어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 오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존경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 역사, 아니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남겨 주었습니다. 1980년 당시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던 광주의 함성은 정부와 언론에 의해 불순분자의 난동으로 왜곡되기도 했습니다. 자유와 정의, 인권을 부르짖은 시민들은 폭도로 매도되었습니다. 정의와 양심의 분노가 군부의 총칼 앞에 무참히 짓밟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5·18광주는 '승리의 역사' 로 부활되어 있습니다. 5·18광주에서 시작된 민주화의 뜨거운 열기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져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하는 토대가 되었고, 마침내 오늘의 참여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참여정부는 바로 5·18광주의 숭고한 희생이 만들어낸 정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는 5·18광주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개혁과 통합' 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를 실현함으로써 광주민주화운동을 최종적으로 완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수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원칙과 신뢰를 바로 세우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뿌리내려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것도 숙제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대접받는 정치와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땀흘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한데 모아야 할 때입니다. 내부 분열로 시간과 국력을 낭비해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대립과 투쟁에서 대화와 협력으로, 집중과 통제에서 분권과 자율로, 소외와 차별에서 참여와 공존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참여정부의 국정원리인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과 타협', '자율과 분권' 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바로 국민통합입니다. 국민통합은 참여정부가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역사적 소명입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개혁과 통합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찬 시대를 열어 갑시다. 이곳 5·18 국립묘지에 잠들어 계신 애국영령들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